

공연·전시 관람 에티켓

공연·전시 관람 에티켓

발행인 | 류형우

발행일 | 2016년 5월 14일

발행처 | 대구예총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성당동)
문화예술회관 예련관 2층

전화 | 053) 651-5028

팩스 | 053) 628-7937

홈페이지 | www.dgyechong.com

이메일 | chong053@hanmail.net

삽화 | 천명기

비매품



대구의 힘은 예술입니다

대구예총이 시민 누구나 공연과 전시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관람 에티켓북’을 펴냅니다. 학교에서 공연이나 전시 등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익히 학습을 해왔지만 그에 비해 관람 예절에 대해서는 교육을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현장에 가는 것을 나와는 상관 없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여기고, 결국은 멀리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예절이 있습니다. 예절이란 알고 몸에 익혀서 행동하면 아주 편하고 좋은 것이지만 모르면 어렵고 거주장스럽게 생각되며,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 생활예절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이 있습니다. 기분 좋게 찾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 눈살 찌푸릴 일이 있으면 분위기를 영망으로 만들뿐 아니라 공연과 전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 관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름다운 예술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예절이 그러하듯이 공연이나 전시장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 즉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입니다. 스포츠에서 관중이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듯이 공연과 전시의 관람자도 예술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대구를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은 예술인들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며, 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작은 책 한 권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여 대구가 진정한 예술의 도시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5월 14일

- 사) 한국예총대구광역시연합회
- 대구·경북건축가회
- 대구국악협회
- 대구무용협회
- 대구문인협회
- 대구미술협회
- 대구사진작가협회
- 대구연극협회
- 대구연예예술인협회
- 대구·경북영화인협회
- 대구음악협회

CONTENTS CONTENTS

공연장에서



1 공연 보기 전

- 옷, 옷, 옷, 그것이 문제로다 + 12
- 우리 애는 조용하다니까 + 14
- 티켓을 어디서 구하지? + 16
- 몰래~ 몰래~ 안 돼요 안 돼 + 18
- 짐이 많은데 자리가 비좁지 않을까? + 20
- 공연 시간 늦었다. 그래도 들여보내 주겠지? + 22
- 감동 100배 공연 즐기기 + 24

Tip - 알아두면 좋은 오페라 감상 + 26

2 공연 관람 중

- 진동 안 돼요', 무음도 안 돼요' + 30
- 와우, 멋있다. 사진 찍고 싶어 + 32
- 어, 저기 빈자리가 더 좋아 보이는데? + 34
- 음, 못 참겠다. 화장실 가고 싶어 + 36
- 뽀뽀가 어때서? + 38
- 의자 좀 넉넉 + 40
- 어, 사람들 박수치네. 나도 따라 쳐? + 42
- 쉬는 시간에 뭐하지? + 50

3 공연 끝난 후

- 공연 끝난 거야? 아니야? + 52
- 맡겨둔 물건 찾아가세요 + 54
-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 56
- 그 밖에 지켜야 할 예절들 + 58

Tip -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 + 60

CONTENTS CONTENTS

전시장에서



1 전시 보기 전

- 그 전시 언제 했대? + 64
- 아무 때나 가서 보면 되나? + 64
- 데이트 겸 가는 거니까 하이힐 신을까? + 66
-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해요 + 68
- 아이와 함께라면 + 70
- 전시 관람의 의미 + 72
- 그림 감상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 74

2 전시 관람 중

- 휴대폰은 꺼주세요 + 76
- 자유롭게 한 바퀴 + 77
- 처음엔 전체를, 그리고 부분을 + 78
- 해설도 함께 + 78

장르별 감상법 + 81

- 도록 참고 + 88
- 메모하면서 + 89
- 작품,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 89
- 작품과의 상호작용(interactive) + 90
- 사진도 안 돼요 + 90
- 잡담, 안 돼요 + 90
- 전시된 그림을 사고 싶다면 + 92
- 그림값은 어떻게 정해질까 + 92

3 전시 관람 후

- 방명록에 글 남겨요 + 94
- 화환은 고맙지만... + 94

- 떠들면 안 됩니다
-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손이나 발로 장단을 맞춰도 안 됩니다
- 프로그램 책자를 소리 내며 흔들어도 안 됩니다
- 풍선껌을 불어도 안 됩니다
- 귀금속을 달랑달랑 소리 내거나 분침 초침이 도는 소리가 요란한 시계도 안 됩니다
- 비닐로 쓴 사탕을 펼쳐도 안 됩니다
- 손지갑을 닫았다 열었다 해도 안 됩니다
- 지갑다고 한숨을 쉬어도 안 됩니다
- 공연 중에 조명이 밝다고 해서 책을 읽어도 안 됩니다
- 늦게 와서 일찍 가도 안 됩니다

위의 10가지는 미국 카네기 홀에서 소개됐던 공연 에티켓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공연장에서

1 옷, 옷, 옷, 그것이 문제로다

서양에서는 100여 년 전쯤 클래식 음악 공연장은 귀부인들의 패션쇼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새로 맞춘 드레스를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공연장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지났고 공연에 맞는 의상을 입어야 하는 규제도 없다. 그렇다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은 자제가 필요하다.

남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리지 않을 정도의 단정한 의상이면 된다.

단정한 의상으로는 정장이 기본인데, 정장이라고 해서 폭이 넓은 치마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옆 사람 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본인이 입어 불편한 의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짧은 치마나 몸에 딱 끼는 옷을 입어 옷에 신경 쓰느라 공연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공연 관람의상으로는 본인이 입었을 때 편안하고, 남들이 보기에 어색하지 않은 옷차림이 가장 좋다.

공연
보기 전

50대 가정주부 착실 씨는
다음 주에 남편 회사 사람들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클래식연주회에 가기로 했다.
그래도 음악회에 가려면 비싸고 좋은 옷 입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민에 빠지는 착실 씨.
아,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하지?



2 우리 애는 조용하다니까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공연은 기본적으로 8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다.

갓난아기부터 미취학 어린이들은 장시간 같은 시간에 집중할 수 없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 움직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 게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떼쓰고 울기 때문에 긴 공연을 관람하기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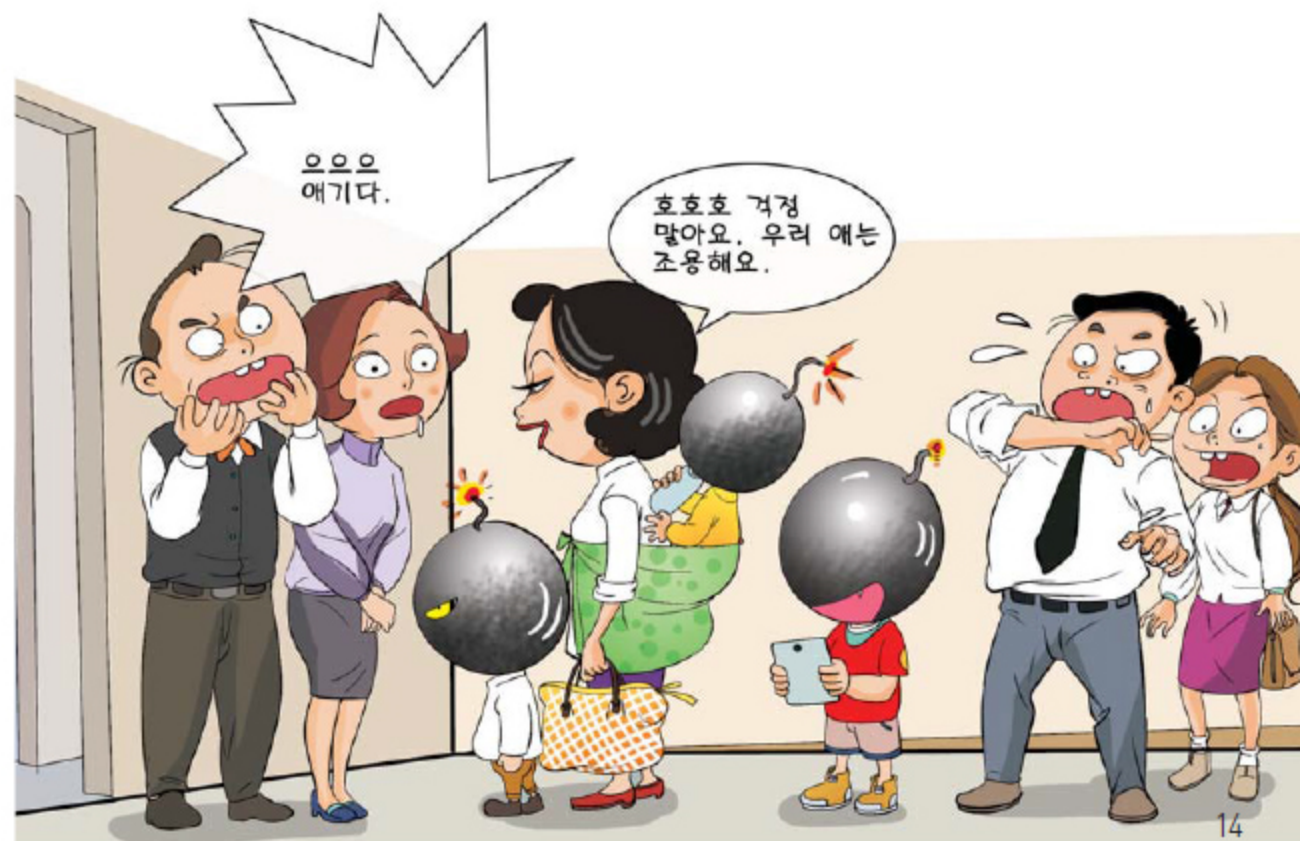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24개월 이상, 5세 이상 등으로 별도의 나이제한이 있으며 성인 공연의 경우 18세 이상,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의 등급으로 표시를 한다. 따라서

공연에매 전에 나이 제한 확인을 꼭 해야 한다.

요즘에는 공연시간 동안 놀이방 운영을 하는 공연장도 있으며 안내원들이 봐주기도 한다.

공연
보기 전

결혼 10년 차 슈퍼맘 씨는 처녀 때에도 연극, 영화, 뮤지컬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공연을 즐겨봐 왔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부터는 문화생활 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더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일에는 일곱 살과 세 살인 두 딸을 친정에 맡기는데, 쉬는 날 공연 본다고 주말까지 아이들을 봐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슈퍼맘 씨는 할 수 없이 두 딸을 데리고 뮤지컬을 보러 갔다. 평소 좋아하던 배우가 나온다는 생각에 기대에 부풀 채 공연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안내 도우미가 말한다. "저, 이 공연은 8세 이상 관람가능한 공연인데요, 아이들은 입장 안 됩니다." 슈퍼맘 씨, 이에 질세라 아줌마 본능 발동해 떼 써보기로 하고 "애들 조용히 시키고 볼게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도우미 왈, "안 됩니다."



3 티켓을 어디서 구하지?

예매 방법은 인터넷, 전화, 현장예매가 있다.

인터넷 예매를 할 때에는 해당 공연장 사이트를 방문해 안내에 따르거나 공연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예매는 24시간 예매 가능하다.

예매한 티켓을 현장 수령 할 경우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예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할 수도 있으므로 예매확인서를 출력해서 가는 것이 편리하다.

현장예매는 당일 공연시간 1시간 30분이나 1시간 전부터 공연 시간 직전까지 가능하다.

공연 보기 전

40대 엄마 : 아들~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 어때?

20대 아들 : 응, 엄마. 안 그래도 이번에 가수 조필필 씨가 40주년 콘서트를 한다네?

엄마 : 어머~ 나, 그 공연 꼭 보고 싶은데, 근데 표는 어디서 구하지?

아들 : 인터넷으로 알아볼게. 요즘 예매는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

현장 예매도 가능한데 벌써 매진될 것 같아.

예매 사이트 들어가면 자리도 골라서 예매할 수 있어. 얼른 좋은 자리 짚해 놔야지.

엄마 : 아들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호호호.



4 몰래~ 몰래~ 안 돼요 안 돼

영화관에서는 팝콘이나 음료수 등을 먹으면서 관람이 가능하나 공연장은 그렇지 않다.

공연은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으면서 관람하는 행위가 자칫 공연하는 연주자나 배우에게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껌, 사탕, 심지어 물도 반입이 불가능하다.
 영화관이라 하더라도 햄버거나 김밥과 같은 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먹지 않아야 한다.
 음식물 이외에도 공연장에는 가져가서는 안 될 것들이 많다.
 부스럭거리는 비닐이나 종이가방 등 소리 나는 것들은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
 더욱이 애완견은 절대불가다.
 애완견을 가족이라 생각한 나머지 데리고 들어가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러면 곤란하다.

공연
보기 전

품위 있게 공연 관람 하던 한교양 씨,
 걸논길로 옆 좌석에 앉은 나무식 아줌마를 쳐다본다. 나무식 아줌마,
 아까 가져온 테이크 아웃 커피를 마시다가 싶더니 보온병을 꺼낸다. 유자향이 난다.
 그리고 떡을 꺼낸다. 굴을 꺼낸다. 게다가 김밥까지... 오마이 갓!

지난 달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소프라노양은 다음 주에 귀국 독주회를 가진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은 누나가 유학 가 있는 동안 쓸쓸한 나머지
 강아지 뽀삐를 키우면서 가족과 다름없이 지냈다. 마침 누나의 연주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두르는데 뽀삐만 혼자 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려 가방 속에 뽀삐를 몰래 넣고 공연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가방 안에만 있던 뽀삐가 답답했는지 자꾸 낄낄댄다.
 주변의 시선이 JJ군에게 쏠리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뽀삐도 누나 노래 알아듣거든요."



5 짐이 많은데 자리가 비좁지 않을까?

공연 보기 전

부피가 큰 코트나 가방 등은
물품 보관소에 맡기면 된다.

공연장 로비에 마련된 물품 보관소에서
안내원이 친절히 받아준다.
반입금지 대상 물품들을 맡겨 두고
공연이 끝난 후 찾아가면 된다.

생일을 맞은 가정주부 한고집 여사.
생일기념으로 남편이 퇴근 후에 뮤지컬을 보자며
시간에 맞춰 공연장으로 오라 한다.
모처럼 외출에 기분 좋은 한고집 여사.
일찍 집을 나와 공연장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들러
이것저것 사다 보니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게 되었는데,
이대로 공연을 보러 가려니 가방들을 좌석 앞에 놓아도 공간이 모자랄 것 같고
집에 가서 두고 오자니 시간이 없다.
한고집 여사. 이 일을 어찌면 좋을까?



6 공연 시간 늦었다. 그래도 들여보내 주겠지?

지각관객의 입장 시기는 사전에 하우스 매니저 와 공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클래식 연주회의 경우 첫 곡, 또는 1악장이 끝난 후다. 교향악단이나 실내악단 주자들이 1악장이 끝난 후 악기를 튜닝하면서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은 이러한 사전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한 악장의 연주시간이 30분 이상 길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연주 중간에 들어갈 수 없으며, 연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도 작품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입장 시기를 정한다. 따라서 공연시간에 늦게 되면 도착 시간대로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편의 공연을 제대로 감상하기 힘들다.

공연장은 여유 있게 30분 전쯤에 와서 대기하는 것이 좋다. 늦어도 10분 전까지는 도착해야 한다.

하우스 매니저

공연장이나 무대에서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책임지는 총관리자. 공연 전에 스태프 회의를 통하여 해당 공연의 세부 내용을 결정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공연장 관리, 공연장 안내원 교육까지 책임진다.

공연
보기 전

H회사 김 대리는 금요일 저녁,
여자친구와 함께 모처럼 연극 한 편을 보기로 했다.
내일이 주말이고 일주일의 피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기만 한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 만날 생각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오늘만큼은 공연시간이 늦지 않게 칼퇴근 하리라 마음먹었던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중독 박 부장은 끊임없이 일을 시켜댄다.
부랴부랴 하던 일을 마무리 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차는 밀리고 또 밀리고 ...
공연 시작 20분이 지나서야 도착하고 만다.



7 감동 100배 공연즐기기

공연장에 30분 전쯤 일찍 도착해 공연시간을 기다리며 공연 프로그램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

공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관람하면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왔는지, 출연자가 누구인지, 내용이 어떨지 잠깐이라도 살펴보자.

특히 오페라는 비싼 티켓 가격만큼 마니아가 아니고서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오페라를 감상할 때에는 기본 러닝타임이 3시간 이상이므로 긴 시간을 즐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오페라 감상 시 우리 귀에 익숙한 선율일수록 반갑고 감동도 크다. 따라서 작품 전곡 음반을 미리 들어두면 좋다. 음반을 직접 구입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감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극 중 주인공이나 연출자에게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본다면 극중 스토리 이해가 더욱 쉬울 것이다.

공연
보기 전

철수 : 영화야 넌 취미가 뭐니?

영희 : 응, 난 시간 날 때 혼자 전시관에 가기도 하고 뮤지컬이나 연극도 종종 보러 가.

철수 : 그거 재밌어?

영희 :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림이든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다 내 친구라 생각해.

내 기분을 풀어주는 친구.

그런데 친구끼리 잘 통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난 오페라 보기 전에 주인공이 누군지도 알고 음악도 미리 들어 보곤 해.

철수 : 듣고 보니 그러네.

그냥 '넌 공연해라, 난 감상할게'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구나.



TIP

알아두면 좋은 오페라 감상

오페라는 노래로 연기를 한다 ■

오페라의 주인공은 여자다 ■

프리마 돈나(Prima Donna)는 오페라 여주인공을 맡은 소프라노 가수를 일컫는다.

오페라는 대부분 비극이며, 여 주인공의 죽음을 뜻 한다 ■

비극이 아닌 오페라는 오페라 부파(Opera Buffa)라 하여 코믹 장르로 분류 된다.

오페라 부파(Opera Buffa) - 오페라는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 시작됐다. 당시 오페라는 귀족의 전유물이었으며 그들의 기호에 맞게 고대 영웅이나 신화가 주된 소재였다. 초기에 심각한 내용의 오페라가 주를 이루었다면 공연 중간에 코믹 개그 쇼를 선보인 것을 계기로 코믹 오페라가 탄생했는데 이를 오페라 부파라 말한다.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남자가 테너다 ■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할 때야 뒤늦게 깨닫는다.

소프라노를 죽게 만드는 배후자는 바리톤이며, 테너는 바리톤에게 놀림만 당한다 ■

바리톤의 의지에 의해 전체 오페라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 메이커는 메조 소프라노다 ■

청순가련형의 소프라노에 비해 메조 소프라노는 체격이 있거나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가 많다.

아리아*가 불려지는 동안에는 오페라의 진행이 중단 된다 ■

아리아는 연극의 독백과 다름없다. 아리아는 작품 진행상 무대 위의 다른 가수들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들을 수 있다.

* 아리아 - 오페라에서 주인공의 독창 부분

카메오

- 연극이나 영화, TV 드라마에서 직접 작품과 관련된 배우가 아닌 유명인사가 아주 짧은 시간 출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인기 배우나 유명인사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등장함으로써 극의 재미를 더하면서 관객들에게 색다른 느낌을 준다. 작품의 맛을 살리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카메오는 양각으로 조각하여 유리 모조보석과 연체동물 껍질 안에 박아 넣은 단단한 보석이나 이러한 보석의 모조품을 부르는 이름에서 유래했다.

지각관객 에티켓

- 안내 도우미에게 억지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지 않는다.
- 한 곡이 끝난 뒤나 무대 전환 무렵 입장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가까운 곳에서 기다린다.
- 입장 후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입구 쪽에 서 있거나 뒤쪽 빈자리에 앉는다.
- 쉬는 시간에 자기자리를 찾아간다.
- 출입문 옆에 있는 좌석 배치도를 봐두어 헤매지 않고 바로 자리를 찾도록 한다.
- 이때 고개와 허리를 깊숙이 숙인 채 조심해서 이동 한다.



1 진동 '안 돼요', 무음도 '안 돼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이 연주되는 공연장. 지휘자는 마지막 음이 끝나도 지휘봉을 내리지 않는다. 여음이 2층까지 울려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 순간 느닷없는 벨소리가 울린다. '바바바밤~바바바밤~'. 베토벤의 <운명>이었던 것이다. 이걸 퓨전음악이라고 해야 하나?

휴대폰은 관객에게도, 특히 공연을 하는 이들에게도 방해가 된다.

공연의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 휴대폰은 반드시 꺼두어야 한다.

무음랩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두운 공연장에서는 작은 불빛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공연 관람에 지장을 준다. 진동으로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릴 때 당황하기 십상이다. 마음이 급해져서 가방 안에 든 폰을 찾는다고 뒤적이다보면 도대체 폰이 어디 숨어있는지 더더욱 찾기 힘들다.



앞 좌석에 앉은 A씨는 수시로 휴대폰을 열어 시간을 확인한다.
 앞 좌석에 앉은 B씨는 허리를 숙이고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린다.
 이들 때문에 C씨는 공연 관람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휴대폰 액정 불빛 때문에 무대로 향해있던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2 와우, 멋있다. 사진 찍고 싶어

공연 중에는 촬영을 할 수 없다.

촬영을 꼭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주최 측에 사진촬영 계획을 물어 프레스증이나 스태프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공연 중에 카메라 촬영을 하면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 배우들이 암전된 객석을 바라보며 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돌발적으로 객석에서 후레시가 터지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져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다. 불빛에 놀란 배우가 다칠 수도 있다.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이나 초상권의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찍고 싶다면 공연이 끝난 후나 사인회 할 때 찍으면 된다. 특히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커튼콜 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연극은 공연이 끝나고 보통 배우들과 포토타임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공연 관람객



3 어, 저기 빈자리가 더 좋아 보이는데?

공연
관객

VIP: 15만원 /

R: 10만원 / A: 8만원 / B: 5만원 / C: 3만원

자리마다 가격 다른 거 아시죠?

빈자리에 사람 없다고, 좋은 자리
노리지 맙시다.

정직한 예술소비 해야죠.

지정좌석제의 공연에서는 비어있는 좌석으로의 개별적인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좌석 등급에 따라 티켓 가격이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A석 티켓 소지자가 주인이 없는 R석 자리에 앉는다면 제 값 다주고 R석 표를 산 사람은 억울할 것이다. 공연 시작 직전 암전상태에서 앞좌석이나 가운데 좌석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안전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관람자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자기 자리에서 꼭 봐야 하겠다.

실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객석 내 안내원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주의를 준다.



4 욕, 못 참겠다. 화장실 가고 싶어

영화관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시간에 관계없이 다녀오는 것이 가능하나 (단, 이 경우에는 관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뮤지컬이나 클래식 등 기타 다른 공연은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때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연주회 의 경우 한 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 기다리는 동안은 공연장 밖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공연을 감상할 수밖에 없다.

공연 시작 전에 최대한 볼일(?)을 끝내고 입장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급히 나가야 한다면 최대한 자세를 낮춰 이동한다. 공연 전반부에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공연을 놓치기 싫다면 인터미션 때까지 조금의 인내심을 가져보자.

연중
관람
중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한참 공연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친구가 속삭인다.
 별 생각 없이 빨리 다녀오겠거니 생각한 나는 공연에 집중한다.
 10분, 20분, 시간은 점점 흐르고 친구는 돌아오지 않는다.
 ‘얘가 화장실에 빠졌나, 중간에 썬 건가? 1막이 끝난 뒤에야 들어온 친구 왁,
 “도우미 언니가 그러잖아, 공연 도중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중에 들어갈 타이밍 알려줄 때 그때 들어가라잖아.
 이게 뭐야 비싼 공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런”

5 뽀뽀가 어디서?

암전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아얌, 쪽쪽 소리.
관심 안 가지려 해도,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애정행각 소리
어찌란 말인가.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제 좀 하자.



6 의자좀넵뒤

공연 보는 도중에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오른 쪽 왼쪽 번갈아 꼬는 수가 있다. 그럴 때마다 앞좌석의 등받이가 걸어차인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본인은 살짝 찬다고 생각해도 당하는 사람은 짜증난다는 것. 앞 뒤 간격이 좁은 좌석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공연장 발 단속 잊지 말자.



7 어, 사람들 박수치네. 나도 따라 쳐?

2010
10월
10일

〈문제1〉 다음 보기 중 공연 관람예절 가운데 틀린 것은?

- ①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 때 사진을 찍었다.
- ② 교향곡에서 한 악장이 끝났을 때 박수쳤다. (정답)
- ③ 오페라 공연 관람 중 여자 주인공에게 '브라바' 라 외쳤다.
- ④ 공연 시간에 늦었는데 공연장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입장했다.

※해설 : 교향곡은 곡 단위로 박수를 친다. 한 곡의 악장과 악장 사이에 박수치면 안 된다.

〈문제2〉 비발디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됐다. 그렇다면 박수는 언제 칠까?

- ① 봄 끝나고
- ② 여름 끝나고
- ③ 가을 끝나고
- ④ 겨울 끝나고 (정답)

※해설 : 계절별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전 곡이 다 끝나고 박수를 쳐야 한다.

〈문제3〉 성악의 경우 박수치는 시기는?

- ① 한 곡마다
- ② 1부 끝난 뒤
- ③ 2부 끝난 뒤
- ④ 두 세 곡씩의 한 묶음마다 (정답)

※ 해설 : 곡이 끝나는 시점을 잘 모르겠으면 피아니스트가 일어나서 가수와 함께 인사를 할 때 그때 박수치면 된다.



클래식 음악회나 오페라 등과 같은 장르의 공연을 감상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일이다. '언제 박수를 쳐야하지?' 고민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수에 인색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박수를 치기 싫어서라기보다 언제 쳐야할지 몰라서 못 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쳐야 할 때를 공연 장르별로 알아본다.

클래식

지휘자나 연주자가 입장할 때, 그리고 한 곡이 끝났을 때 박수를 친다. 유의할 점은 한 곡이 보통 3~4악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악장과 악장 사이에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 첫 악장이 끝난 후 여운을 느끼기 위해서다. 연주가 끝난 후 연주자들이 악기를 내려놓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관객들도 함께 여운을 느낀다.

모든 악장이 끝난 후 '브라보' *라고 외칠 수 있는데 마태수난곡과 같은 엄숙한 종교음악의 경우는 구호를 자제한다. 연주가 끝난 후 훌륭한 연주였다면 연주자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기립박수를 쳐도 된다. 계획된 프로그램이 끝나도 앙코르는 세 곡 정도가 기본이다.

공연이 끝났다고 바로 나가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오페라

아리아나 이중창이 끝나면 박수를 치고 환호의 뜻에서 '브라보' 를 외친다. 작품 속 흐름이 모호하거나 연주가 계속 연주를 이끌어어나갈 때에는 조용히 정청한다.



* 브라보(Brovo), 브라바(Brava), 브라비(Bravi)

브라보는 이탈리아어로 '잘 한다', '좋다', '신난다'의 감탄사다. 단어 끝의 o는 남성명사, a는 여성명사, i는 복수명사를 나타낸다. 따라서 한 명의 남성 연주자나 배우에게는 '브라보' 를, 한 명의 여성 연주자나 배우에게는 '브라바', 출연자 여러 명에게는 '브라비' 라고 외친다.

국악

판소리나 민요 등은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좋다. '집박'이 입장할 때부터 인사를 할 때까지 박수로써 음악을 청하는 것이 좋고, 음악이 끝날 때도 집박이 박을 치면 박수로 답례하는 것이 좋다. 판소리나 사물놀이의 경우, '일쑤', '좋지', '잘한다', '일쑤' 같은 추임새나 박수는 연주자들과 관중들 모두의 흥을 돋울 수 있다. 정악은 어느 정도 여음이 사라진 후에 박수로 답례하는 것이 좋다. 공연이 끝나기 전에 괴성이나 휘파람을 부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다.

*집박 - 음악의 시작과 끝냄을 알리기 위해 박을 침으로써 국악 연주를 지휘하는 사람



연극, 뮤지컬

연극은 공연이 모두 끝난 후 박수를 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뮤지컬의 경우는 멋진 아리아 다음이나, 화려한 군무 다음에 박수를 칠 수도 있다. 공연이 모두 끝난 후 '커튼콜' * 때 박수를 칠 수 있다.

*커튼콜 - 연극이나 음악회 등의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이 찬사의 표현으로 환성과 박수를 계속 보내어 무대 뒤로 퇴장한 출연자를 무대 앞으로 다시 나오게 불러내는 일



현대무용

현대무용의 경우는 보통 한 작품 전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연 중간에 박수를 친다면 춤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작품 전체가 끝난 후 박수를 치는 것이 가장 좋다.

발레

발레는 비교적 자유롭게 박수를 칠 수 있다. 발레 공연 중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에게 '브라보'라 외칠 수 있다.

주역 무용수들이 고난도의 기교를 보여주면 공연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이 박수를 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발레리나가 32회전 같은 하이라이트의 연기를 보여줄 때 흔히 장단을 맞추어 박수를 치는데 이것은 무용수가 리듬을 놓쳐 춤에 집중하는데 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

경의를 표하는 기립박수의 기원

기립박수의 기원은 헨델의 <메시아> 초연 때라고 한다. 1743년 3월 런던의 한 극장에서 헨델이 국왕 조지 2세가 참관한 가운데 그의 걸작 메시아를 지휘, 연주하던 당시 국왕이 '할렐루야 코러스'에 이르러 감격한 나머지 기립박수를 한 뒤로 음악회에서 기립박수 관행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8 쉬는 시간에 뭐하지?

공연에 집중하다보면 어느덧 인터미션(intermission : 다음 막 공연 전 휴식 시간이 찾아온다. 이때 주어지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사이.

인터미션은 공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잠깐의 휴식을 갖는 것이므로 자리에만 앉아 있기보다 공연장 밖의 바람을 한 번 쐬고 오면 좋다.

또는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공연장 매점을 이용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 볼 수도 있다. 단, 공연장을 나갈 때에는 티켓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다시 들어올 때 티켓이 없으면 재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 공연 끝난거야? 아니야?

공연
끝난 후

화려한 무대의 막이 내리고 관중들은 환호하며 박수친다. 이제 공연이 끝났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시 동안만 자리를 지키자. '커튼콜'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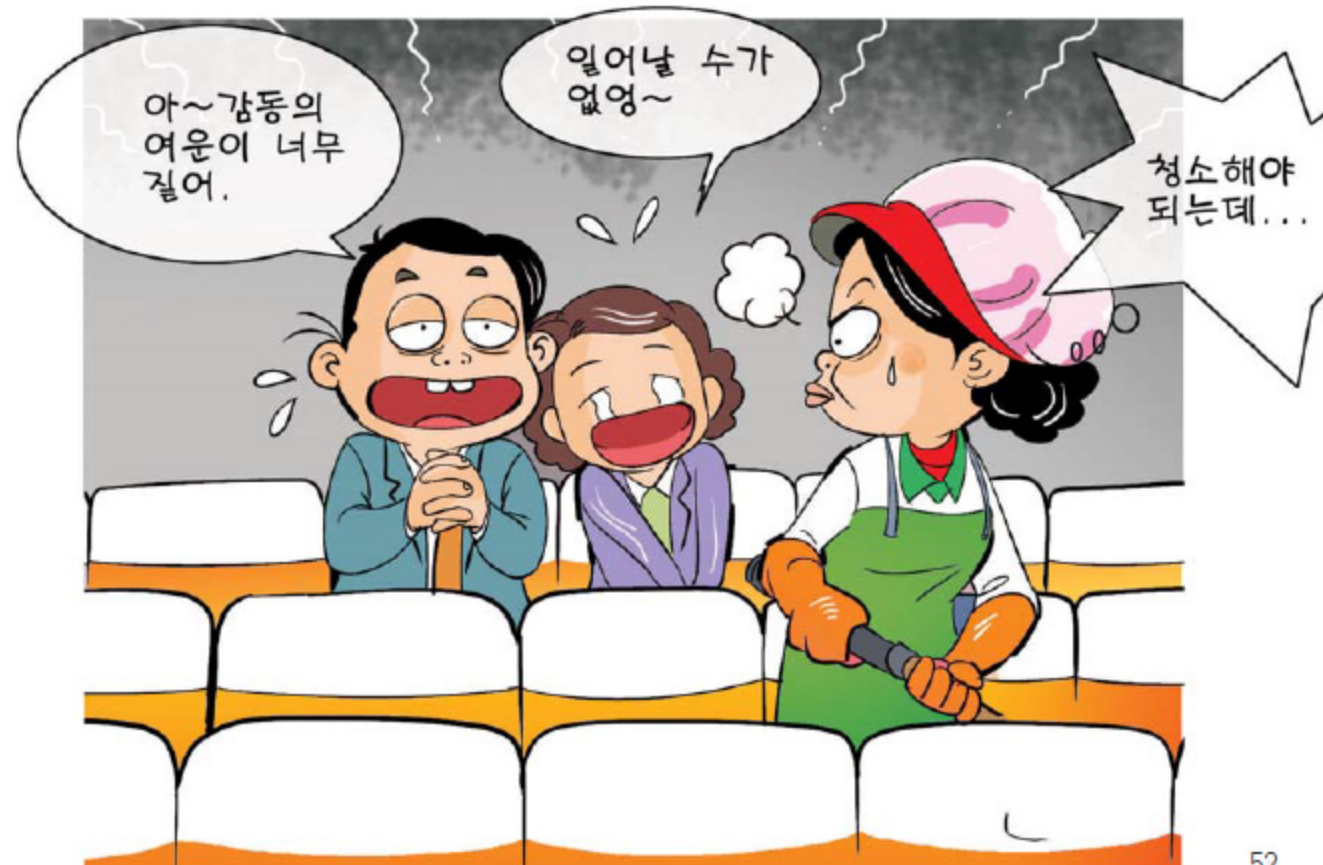
커튼콜은 출연자들이 관객의 박수에 답하기 위해 다시 무대로 나오는 것이다. 박수가 얼마동안 이어지는가에 따라 앙코르 공연의 여부가 달려있다.

공연이 끝났다고 바로 나간다면 공연을 위해 애쓴 출연자들이 조금은 섭섭하지 않을까.

그리고 힘찬 박수를 보내며 여운에 젖은 다른 관객에게 방해는 되지 않을까. 나에게 감동이 덜했다고, 바쁘다고 급히 나가기 보다 커튼콜을 함께 하며 마지막까지 즐기는 것도 공연 관람의 중요한 에티켓.

결혼 5주년을 기념해 남편 씨는 부인과 함께 뮤지컬 관람에 나섰다. 네 살 아들을 부모님 댁에 맡기면서 억지로 떼놓고 오느라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그렇게 다다른 공연장에서 뮤지컬은 이미 시작되고, 아내는 벌써 화려한 의상과 폭발하는 가창력의 무대에 혼을 빼앗겨버린 듯했다. 남편 씨 역시 아내와 연애 시절 공연 보던 때를 생각하며 오랜만의 데이트 시간을 즐겼다. 그렇게 공연은 끝나고 남편은 맡겨둔 아이 생각에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 박수를 쳐대며 떠날 줄을 모른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기에 저리도 좋아할까. 공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라, 배우들이 다시 나와 노래를 부른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남편 씨 속으로 생각한다.

'아직 공연이 끝난 게 아닌가벼'



2 맡겨둔 물건 찾아가세요

물건을 맡겨 두고 공연장을 그냥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중요한 물품일 경우 공연장에 전화해 따로 보관을 부탁해 이후
가지러 가면 된다.

그러나 다시 가지러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연장을 떠나기 전 정신 차리고 주변을 살피자.

공연
끝난 후

직장인 P양은 엄마와 친구 같은 사이다.
회사 퇴근 후 저녁에 엄마와 함께 연극 한 편을 보기로 했다.

“엄마, 우리 B백화점 앞에서 만날까?”

“응, 그래, 그래, 알겠다.”

공연 시간 한 시간 전에 엄마를 기다리던 P양, 멀리서 엄마의 모습이 보인다.

“엄마, 왔어? 근데 이게 뭐야?”

“응, 너 기다리다가 백화점 좀 둘러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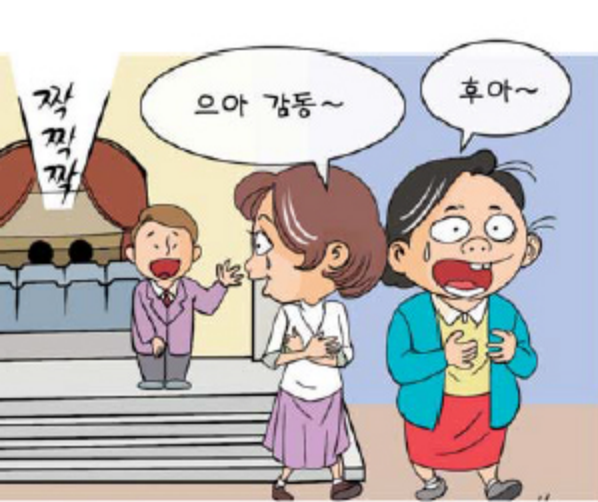
상추 한 박스가 싸더라고, 그래서 하나 샀지. 가벼우니까 들고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들고 간 상추는 일단 공연장 내 물품 보관소에 맡기고 공연을 봤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두 모녀는 여운이 남았는지 주인공 이야기에 열변을 토하며
집으로 왔다.

어, 근데 이거 뭔가 허전하다.

“아, 맞다. 상추!”



3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관람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예의다.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남은 비닐봉지나 프로그램 북 등이 버려진다. 공연장에 남겨진 쓰레기는 후에 청소를 통해 치워지는데, 꼭 안 보이는 곳에 쓰레기를 숨겨두는 관람객 때문에 애를 먹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한다.

공연
끝난 후

착한 사람 : 영화 보고 나서 먹다 남은 팝콘 다시 가지고 나와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덜 착한 사람 : 공연 보고 나서 프로그램 책자 그냥 밑에 두고 나오는 사람

나쁜 사람 : 씹던 껌 아무도 모르게 의자 밑에 붙이는 사람



4 그 밖에 지켜야 할 예절들

소리, 안 돼요

- 헛기침은 자제한다.
- 줄면서 코를 골면 안 된다.
- 옆 사람과 소곤거리면 안 된다.
- 팸플릿 등을 부스럭대며 보는 것을 삼가야 한다.
- 만약 심한 감기 등에 걸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공연 관람을 피하거나 관람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

냄새, 안 돼요

- 신발을 벗지 말아야 한다.
- 공연장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 담배를 피우는 경우라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함께 밖으로 나가 피우는 것이 원칙이다.

여성에게, 배려를

- 붐빌 때는 남성이 앞서서 길을 터 준다.
- 공연이 끝난 뒤 남성은 먼저 통로에 나와 함께 온 여성을 기다려서 앞세워 나간다.
- 여성이 비 흡연자일 경우에도 혼자 자리에 있게 하지 말고 함께 나가는 것이 좋다.

공연
끝난 후

- 공연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동행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좋지 않다.
- 의자에 앉을 때 다리는 모으자.
- 옆 사람의 자리를 차지해 불편을 준다.
- 공연 중이거나 후에 무대 위를 걸어 다니거나 기념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 무대도 하나의 공연 장치며 예술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 모든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



TIP |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

팍팍한 생활,
 무언가 자극제가 없을까? 하다가
 문화생활을 열심히 해 볼 것을 다짐한
 중년의 한 남성. 요즘 하는 공연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다.
 '가만있어 보자. 오페라? 뮤지컬?
 둘 다 노래를 하면서 연기하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오페라란?

오페라는 성악(아리아), 관현악(서곡, 전주곡, 간주곡) 등의 음악을 중심으로 무용 등이 조화를 이룬 종합무대예술로 고전적인 음악극(가극)을 말한다.

뮤지컬이란?

뮤지컬의 장르적인 특징은 미국에서 발달한 현대음악극의 한 형식으로 음악, 노래, 무용을 결합시킨 종합무대예술이다.

■ 공통점

- 이야기가 있는 음악이다.
- 독창, 중창, 합창 등으로 이루어진다.
- 무대 장치가 있고 대화를 노래로 하며 몸의 움직임이 있다.

■ 차이점

• 형식

오페라는 음악을 위해 극이 쓰여졌으며 뮤지컬은 극을 위해 음악이 사용된다. 따라서 오페라는 모든 대사를 노래로 표현하며 문학작품이나 역사적, 신화적 인물을 주로 다룬다. 뮤지컬은 자유롭게 대사와 노래를 적절히 혼합해 연극적인 요소가 강하다.



• 연주자 명칭

오페라는 공연하는 사람들을 '가수'라고 부르며 가수가 음악을 위주로 공연한다. 뮤지컬은 공연하는 사람들을 '배우'라고 부르며 배우가 노래하고 춤을 춘다. 따라서 '오페라 가수'라는 말은 있지만 '오페라 배우'라는 말은 쓰지 않으며 '뮤지컬 배우'라는 말은 있지만 '뮤지컬 가수'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 공연장소와 연주

오페라는 보통 오페라 전용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페라 가수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따로 필요 없다. 성악가들은 육성만으로도 충분히 대사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뮤지컬은 일반 공연장에서 배우들이 가수들처럼 마이크를 사용한다.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야 하기 때문에 반주도 일반 가요반주를 사용하며 때로는 녹음된 반주를 사용한다.

• 공연 시 부르는 노래

오페라는 아리아와 레치타티브, 뮤지컬은 넘버라고 부른다. 아리아는 오페라의 꽃이라 불리는 기교적이나 음악적으로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독창곡이다. 오페라는 정통 클래식 창법에 기본 바탕을 둔 반면 뮤지컬은 창법이 대중적(Popular Style)이고, 반주도 형식이나 구성이 다양하며 대중적 악기가 동원된다.

• 가사

오페라는 극 전체가 음악이 중심이고 언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노래가 대체적으로 원어로 불린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한 책자가 필요하며 미리 그 내용을 알아야 감상하기가 좋다. 뮤지컬은 번역 곡, 개사된 곡으로 편집해 공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



-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낮은 굽의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게 한다.
-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고 관람할 수 없다.
- 유명한 전시만 찾기보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를 찾는 것이 좋다.
- 미술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림을 자주 보는 것이 좋다.
- 많은 훈련을 통해 그림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 전시 관람 시에도 휴대폰은 꺼두어야 한다.
- 자유롭게 한 바퀴 돌아보고 관심 있는 작품을 다시 보는 것이 좋다.
- 작품을 감상하는 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면 좋다.
- 전시장 안에 큐레이터나 도슨트가 있다면 작품 설명을 부탁할 수 있다.

※ 전시 관람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것 10가지입니다.

전시장에서

전시 보기 전

그 전시 언제 했대?

옆집엄마 : 앞집 엄마,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모모미술관에서 피피소 특별전 한 거 봤수?

앞집엄마 : 피피소 화가 말이야? 어머, 난 몰랐네.

옆집엄마 : 나도 놓쳤지 뭐예요. 일주일이나 했다던데. 알았으면 진작에 애들이랑 가서 봤죠. 수행평가에 도움도 됐을텐데.

앞집엄마 : 그러게 말이야. 공연은 오다가다 포스터나 현수막 보고 알겠던데 전시는 잘 모르겠단 말이지.

작품 감상을 하러 해도 어디서, 언제 하는지 잘 몰라 못 가는 경우가 있다. 전시 관련 정보는 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간지에 소개되는데(지방의 경우 지역 일간지) 미술관련 기사와 함께 한 주 동안의 전시 행사 정보를 볼 수 있다.

아무 때나 가서 보면 되나?

○○미술관 운영안내

- 평일 : 오전 9시~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7시
- 일요일, 공휴일 : 오전 9시~7시
※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 야간개장시간(4월~10월)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9시)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갤러리나 전시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문의 전화를 할 수 있다. 개관시간은 보통 오전 9시 혹은 10시며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문을 닫는다. 마지막 입장 시간은 폐관 1시간 전인데 이는 관람객들이 여유있게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공미술관의 경우 대개 월요일이 휴관일이다.



데이트 겸 가는 거니까 하이힐 신을까?

회사에 갓 들어간 나신입 씨는
 지난 주 소개팅에서 멋진남 씨를 만났다.
 대학 때 취업 준비하느라 공부만 한 나신입 씨는
 스무살 이후 연애는 처음이다.
 데이트를 하기로 한 어느 일요일 오후,
 그들은 점심을 먹고 화랑이 즐비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그림 감상이 취미라는 멋진남 씨는 나신입 씨와 함께
 몇 군데의 화랑을 들렀다.
 걷고, 또 걷고, 돌고 또 돌고.
 데이트를 마치고 온 나신입 씨.
 그녀의 발은 어떻게 됐을까?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낮은 굽의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신발은 운동화 등 발이 편안한 신발이되 슬리퍼나 소리 나는 신
 발은 다른 사람이 작품을 관람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피한다.



전시 보기 전

가벼운 몸으로 감상해요

대학생 M군은 겨울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하기로 했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체코 순으로 나라를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파리에서의 일정을 하루 밖에 계획하지 않아 마음이 바쁜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루루 박물관과 오르르 미술관은 꼭 가야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박물관부터 향했다. 박물관이 어찌나 큰지 전시관 만 해도 8개나 됐던 것. 작품은 봐도 봐도 끝이 없고, 몸은 지칠대로 지친 M군. 그는 등에 멘 배낭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규모가 작은 전시관이라면 괜찮지만, 작품 수가 많은 대형 전시관을 찾은 경우라면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게 한다.

전시관에 따라 물품 보관소가 비치된 곳이 있으니 안내원에게 물어보고 맡기는 것이 좋다.



전시 보기 전

아이와 함께라면

수수동에 사는 40대 주부 알뜰 씨에게는 대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있다. 알뜰 씨는 두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남편과 함께 미술관을 서점 가듯이 다니곤 했다. 아이들이 책으로만 보던 그림을 실제로 보고 나더니 부쩍 미술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은 서점에 갔는데 딸아이가 만화로 된 미술역사책을 고르는 것이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에는 전시관에 다녀오면 글로 쓴 감상문보다 그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보게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여온 탓인지 공부할 때도 집중력 있게 하고, 무엇이든 적극적이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어릴 때 접하는 것이 좋다.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작가들이 대부분 작품의 모티프를 자연에서 얻어 표현하는데, 자연과 가까이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도시의 아이들이 미술작품을 통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전시장을 아이가 직접 고르도록 하면 감상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유명한 전시를 찾기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숙제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의무감에 찾다면 작품을 집중력 있게 감상할 수 없다. 미술관 내 부대행사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대부분 전시와 연계된 행사이기 때문에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전시장을 자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보게 되면 그만큼 더 알고 싶은 게 생기고 호기심이 생긴다. 그 호기심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공연과 달리 전시는 특정 연령 제한이 없지만 박물관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라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고 관람할 수 없다.

전시 관람의 의미

서양미술을 전공한 미미 씨. 그는 사실 미술에 별 관심이 없다.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리다 보니 상을 많이 탔고,
그래서 자연스레 미대 진학으로까지 이어졌다. 졸업 후
어느 화랑의 큐레이터가 되고 나서도 그는 그림을 보는 것이
그저 직업인의 업무라 여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다른 화랑의 그림을 보러 갔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어느 화가의 그림 앞에서 멈췄다.

미미 씨는 자유분방한 선과 화려한 색채, 튀어나올 듯 한 이미지에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기분 처음이야’

20년을 한결같이 집, 회사만 오갔던 박가장 씨.
그는 40대의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가장 씨에게는 특별한 취미도,
특기도 없다. 주말이면 아이들의 수행평가 숙제를 돕기 위해
야외에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는 일이 다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미술관으로 향했다.

미술관에 가면 왠지 ‘있어’ 보이니까.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기 위해 갔는데 한 번 두 번 자꾸 가다보니
그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연말에 받은 보너스로
작품을 사기도 했다. 1면과 정치, 스포츠면만 보고 덮던 신문도
문화, 전시란을 챙겨보기 시작했다.

누가 미술품 감상을 고상한 취미라 했던가. 작가가 의도한 작품
의 의미를 모르겠고, 재미도 없는데 왜 보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전시장에서 실제로 미술작품을 감상하면
‘아, 이럴 수가’ 하고 벼락 맞은 듯이 그 작품이 하고자 하는 말
을 알아듣고는 감동하기도 한다. 그것이 무료하고 딱딱한 생활
의 에너지로 다가온다. 미술을 알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작품
을 실제로 보는 것이다.

미술에 대해 잘 알고 싶다면, 더불어 인생을 알고
싶다면,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일단 의식적으로
든 습관적으로든 그림을 자주 보는 것이 좋다.

자주 보면 볼수록 친밀감이 생기고 작품을 보는 눈이 생긴다. 흔
히 취미로 자주 보는 영화도 액션, 스릴러, 로맨스 등 여러 장르
를 보다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가 생기고, 더불어 그 장르에
대한 관심이 생겨 감독, 배우, 영화의 배경 등 다양한 정보를 찾
아보듯이 미술도 마찬가지다. 그림이 좋은지 조각이 좋은지, 판
화가 좋은지, 그림 중에서도 서양화가 좋은지 동양화가 좋은지
자꾸 보다 보면 정이 들고 관심이 가게 마련이다. 혼자 가는 것
보다는 일행과 함께 가서 의견도 교환해보자. 전시와 관련된 팸
플릿을 보면서 이를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된다면
나름 자기만의 작품 보는 방식을 체득하게 된다.

그림 감상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음악은 소리가 직접적이고 문학의 언어는 명쾌한데 반해 미술의 이미지는 해석하기 나름으로 모호하기 때문이다. 눈을 통해 사물을 보는 시각적 체험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배우거나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글을 읽을 때에도 많이 읽어봐야 글의 종류가 다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읽기 방법을 택하듯이,

이미지를 판독하는 데도 많은 훈련을 통해 그림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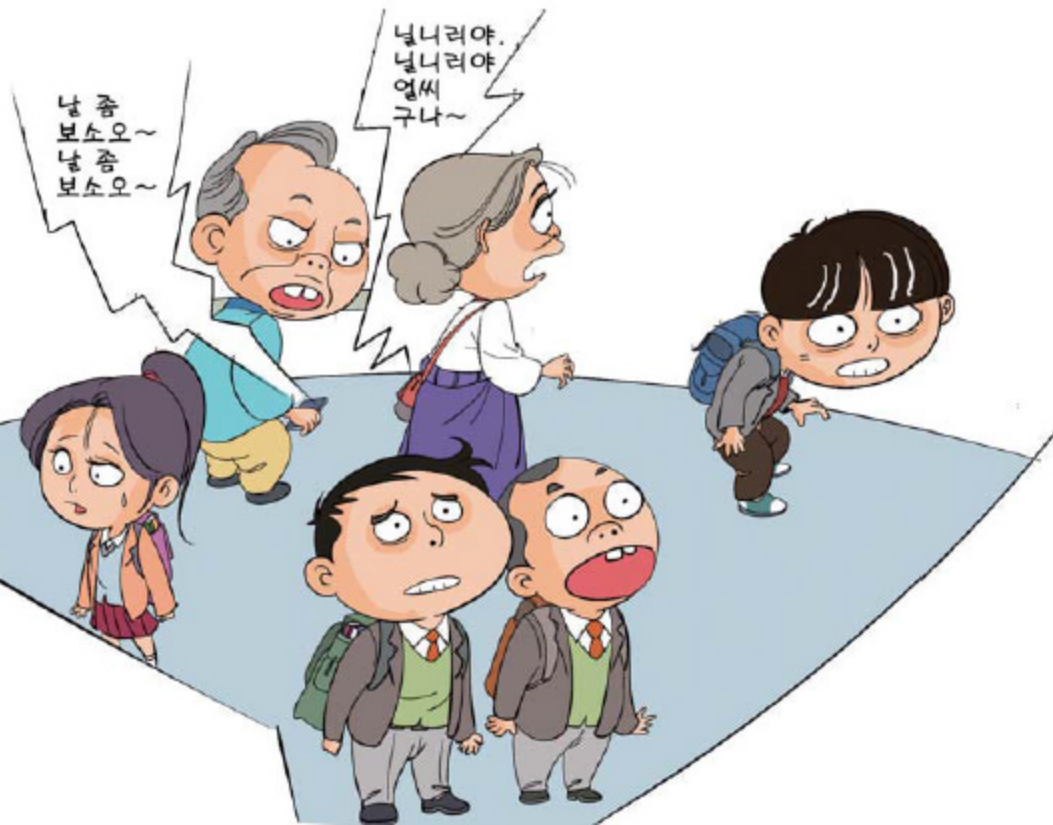
해석적인 것과 직설적인 것, 상징적인 것, 상상적인 것 등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이미지를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봐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전시 관람 중

휴대폰은 꺼주세요

- 공연과 마찬가지로 전시 관람 시에도 휴대폰은 꺼두어야 한다. 다른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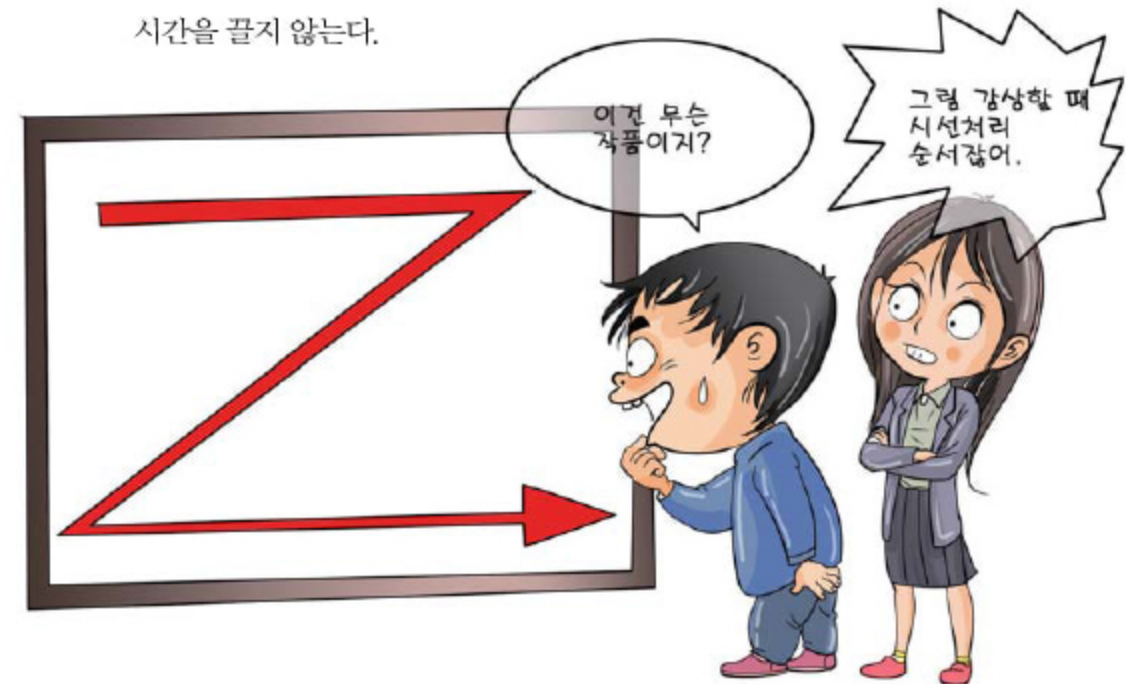


자유롭게 한 바퀴

- 전시 관람 순서는 특별히 없다.
보고 싶은 대로 돌아봐도 무방하다.

전시장에 따라서는 관람 동선을 표시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기획자가 의도한 동선에 따라 감상하면 작품의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한 바퀴 돌아보고 관심 있는 작품을 다시 한 번 보는 것이 좋다. 관람객이 많을 경우 혼자 오랫동안 한 작품에 서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



처음엔 전체를, 그리고 부분을

- 작품을 감상하는 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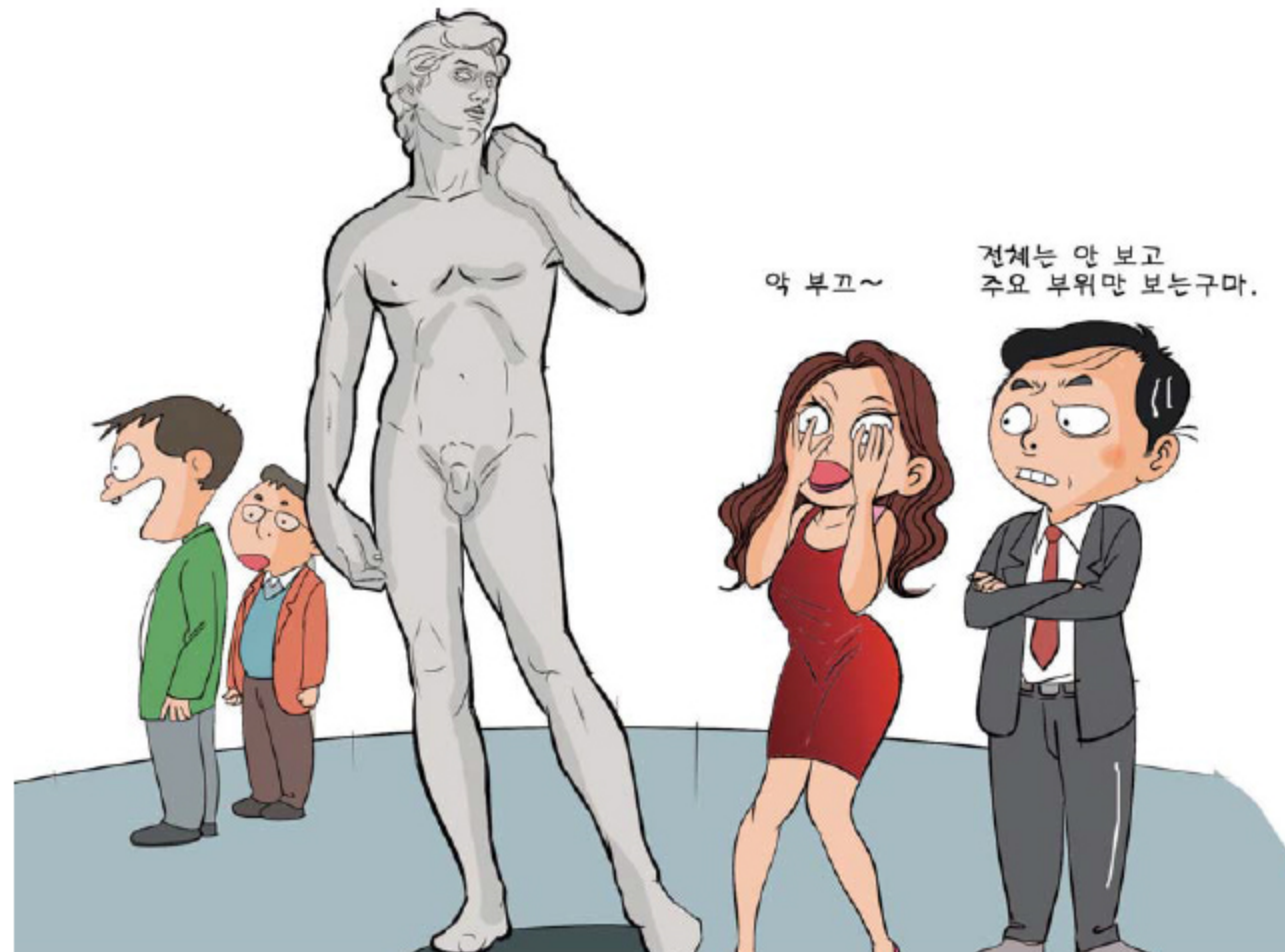
1~2분간 서서 전체와 부분을 고루 살펴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품으로부터 관람 가능한 거리를 표시해 두기도 한다. 이는 너무 가까워서 봤을 때 관람객이 작품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대형 전시의 경우 보통은 몇 년 뒤 비슷한 기획의 전시들이 또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꼭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도 꼭 보고 싶다면 많은 작품을 한 번에 훑듯이 보는 것보다, 감상하고 싶은 작품들을 몇 작품 선별해 자세히 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해설도 함께

- 전시장 안에 큐레이터*나 도슨트*가 있다면 작품 설명을 부탁할 수 있다.

이들의 작품 설명을 들으면서 작가의 의도와 자신의 느낀 점을 비교해 본다.



전시 관람 중

*큐레이터(curator) - 전시관 큐레이터는 전시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 교육과 보급, 미술관 자료 정리 및 기록, 보존의 임무를 동시에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감상자들에게 작가의 작품이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람이므로 관객의 취향과 시대의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도슨트(docent) -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전시물을 설명하는 자원봉사자다. 일정한 교육을 받고 전시 관련 기관에서 일반 관람객들을 안내하며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감상자의 이해를 돕는다. 최근 들어 갤러리나 전시관에서는 도슨트의 전시 안내 시간을 따로 정해두고 있는 추세다.

작품에 대한 배경 알아보기(시대, 작가)

작품 밖에 여러 가지 정보를 챙겨두면 이해가 훨씬 쉽다.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와 그 당시 상황을 알아두면 좋다. 예를 들어 전쟁과 혁명, 경제적 불황 또는 풍요로움 등 작품이 놓여져 있던 시대에 따라 의미해석이 달라진다.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스페인 내란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본다면 그야말로 재미있게 그려진 그림 정도로 밖에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작가의 출신배경, 성장기, 생활환경 등의 요소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농촌 출신 작가와 도시에서 성장한 작가 사이에는 미감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난한 집안 출신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 사이에는 분명 문화적 차이가 있다.

장르별 감상법

기본 감상법

① 화가가 무엇을 그렸는지 본다.

자연, 정물, 인물 등과 같은 그대로의 일상을 그리기도하고, 기쁨, 슬픔, 사랑, 그리움 등의 느낌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표현하거나 특정사물을 분석하고 해체, 재구성해 그린다.

② 주제를 알았다면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화면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본다. 어떤 형태와 색채로 얼마의 공간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구성을 살핀다.

③ 표현 기법을 본다.

작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이 있다. 점만을 이용해 주제를 표현하기도, 사진보다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서양화

그림을 감상할 때 화면의 붓 터치 하나하나의 색과 질감을 느끼기 위해 가까이서 한 번 보고, 뒤로 물러나 보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느껴보는 것이 좋다.

앞으로 다가가서 본 다음, 붓 터치만 집중을 하고 조금 더 걸음걸이를 뒤로 빼면 어느 순간에 전체적 배경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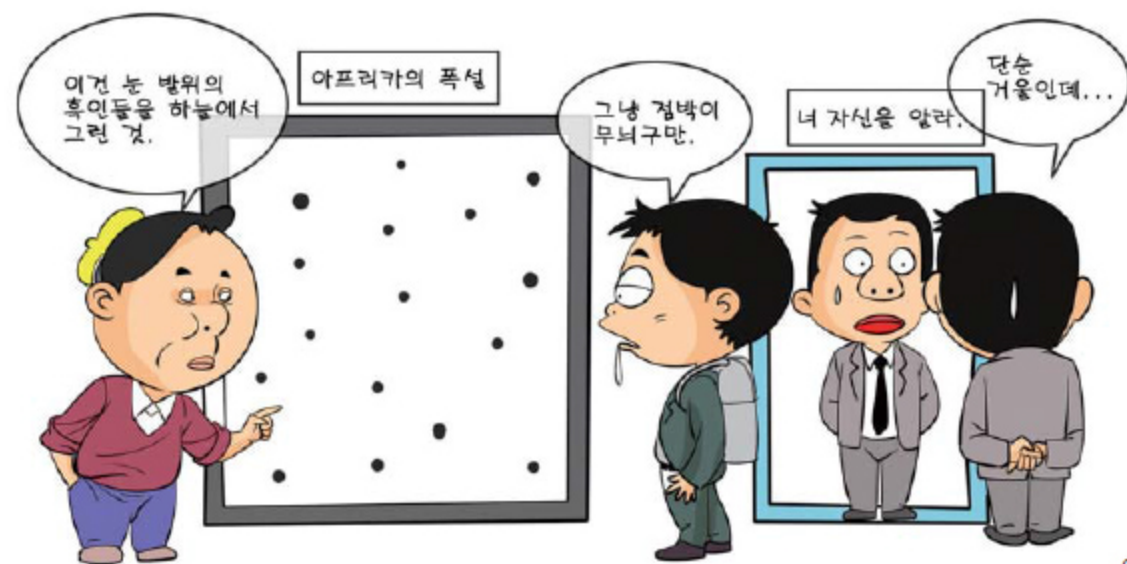
전시 관람 중

예술 작품을 볼 때 겉으로 저것은 외부세계를 재현한 어떤 구상화네, 이것은 형태가 없는 추상화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구상화지만 어떤 색채들이 어떤 조합 속에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느끼면 된다.

무엇보다 구상이든 추상이든 미술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미술사와 최소한의 미술 원리, 그림의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해서 틈틈이 공부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추상화를 볼 때 아무렇게나 그려진 선, 화면 전체를 온통 까만색으로 칠한 그림을 보았을 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제목이라도 붙이지면 '무제(untitled)' 라고 적혀 있다. 우리는 형태 인지가 가능한 정물화나 풍경화, 인물화 등을 볼 때 좋고 싫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물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 그림을 평가한다. 그러나 추상화는 전혀 그 기준의 가닥을 찾을 수 없다. 추상화를 감상할 때에는 메시지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물감의 두께, 색채의 배열, 혹은 캔버스 전체 내의 균형 등 형식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 눈을 집중시켜 그 감각적인 특성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좋다.

요즘의 현대미술 작품도 마찬가지다.



한국전통회화

서양화가 빛에 의한 명암법으로 그리는 사실적 그림이라면, 한국전통회화는 음양법에 의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더 주목한다. 한국전통회화는 크게 수묵화, 채색화, 수묵 담채화로 나뉜다. 물과 먹으로만 그려지는 수묵화는 필획의 느낌에 포인트를 잡고 보면 된다. 화려한 채색화는 불투명한 안료와 선이 어떻게 결합돼서 정밀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지, 또 수묵 담채화는 수묵과 엷은 색채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보면 도움이 된다. 전통회화에서 그림과 문자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낙관 등도 눈여겨봐야 한다.

옛 문인들은 그림만큼 그림 속의 시의 경지를 중요시하며 시서화 일치를 최고의 경지로 여겼다.

서양화의 서명과 달리 전통회화에서 작가의 인장인 낙관은 단순한 인증의 의미를 넘어선다. 낙관 자체의 조형미나 내용에 더해 낙관의 위치가 화면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림과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볼 수도 있다. 그림을 읽는 방향은 서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 일반 서양화들과 다르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상을 할 때도 우측 상단에서 좌측으로, 좌측 하단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감상법이다. 또 그림 앞에서 필선을 따라해 보면

서 그 속도감이나 강약을 느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직접 그려보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이다. 형상이 이뤄지는 맛을 한번 느껴보면 조선시대 전통회화에 그려진 필획의 느낌을 더욱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한국전통회화는 이렇게 내가 대상이 되고 대상이 내가 되는 몰아일치의 조화로움을 이해하며 마음으로 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설치

설치의 개념은 평면회화나 조각과는 달리 이미 완성된 작품을 전시공간에 걸거나 놓아 둔 것이 아니라 전시 공간, 즉 장소의 여건에 맞추어 작품을 설치하는 이른바 현장위주의 작업을 가리킨다. 작가는 일상의 물건들을 수집하여 공간에 재구성, 배열하는 작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평면회화처럼 원근법에 의하여 화면을 구조적으로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경험적 시각으로 화면을 분해하고 단편적인 시상을 결합시켜 새로운 조형 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을 작업의 재료로 삼음으로써 예술을 삶과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설치미술은 다른 미술작품과는 달리 짧은 기간에 전시된 뒤에 해체되기 때문에 자료만 남는데 영구보존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설치하기도 한다.

조각

회화작품보다 더 선과 재료의 지배를 받는다. 작품 자체가 질량감을 갖고 입체화 되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선의 이어짐이기 때문이다. 조각작품은 작품의 내용과 재료가 일치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이 재료를 썼구나 하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작품에 나타난 표정이나 몸짓, 사물의 조형성 등에서 그 의미를 읽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진

사진을 감상할 때에는 먼저 어떤 종류의 사진인지 파악한다.

사진의 종류는 사진의 내용에 의해서 명확하게 판단된다. 광고 사진, 보도 사진 등 많은 사진의 종류는 제목에서도 구분할 수 있다. 사진 제목을 먼저 볼 필요는 없다.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기술적으로 완벽한지를 살펴본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초점과 노출 그리고 안정적인 구도는 좋은 사진의 일차적인 요건이다. 그리고 나서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를 본다. 작가가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알려면 사진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었는지 또는 어느 부분에 노출이 맞았는지를 보면 된다. 보여지는 것 이외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 어떤 작가들은 의도적으로 아웃포커스를 사용해 주제를 흐려놓는다. 방관자적인 시점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달한다. 또한 선이나 면 등의 구성요소를 본다.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는 초점이나 적절한 노출 외에도 구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진을 불안하게 가로지르는 사선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상한다. 더불어 동일한 작가의 다른 사진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 동일한 피사체가 어떻게 다르게 표

현되는지,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인 정보가 표현되고 있는지, 예술의 방향과의 연관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사진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있는 그대로의 감정에 충실해 본다.

전쟁터의 사진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어떤 사진들은 전쟁 속에서도 평화로운 이미지를 전달한다.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들이 잘 표현되었는지 본다. 한 가지 감정만 있는 사진보다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 있는 사진이 더 강하게 이미지가 남는다. 예를 들어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지만, 전쟁터에서 다리가 잘린 아이가 해맑게 웃는 사진은 그보다 더욱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미지의 강한 대비효과이다.

도록 참고

전시장 입구에 놓여있는 팸플릿을 보면 도움이 된다. 깊이 있는 감상을 위해 작품해설이 실린 도록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

이는 작품 이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두고 또 볼 수 있어 소장가치가 있다.

메모하면서

펜과 메모지를 준비해서 기억하고 싶은 그림과 느낌을 기록하면 좋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품을 보는 안목이 달라짐을 느끼게 된다.

작품,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거나 손으로 만져보면 안 된다. 손에는 땀 등으로 인한 염분이 있기 때문에 작품이 손상된다. 특히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을 발로 가리키는 일은 절대 해선 안 된다.



작품과의 상호작용(interactive)

작품을 만져서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전시가 보기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요즘은 작품을 만져볼 수 있는 전시도 간혹 있다. 뚜껑을 열어보거나, 눌러보거나, 작품 속을 지나가거나 하는 등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작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까이 가서 보고, 만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하면 된다.

사진도 안 돼요

사진을 찍는 경우 플래시를 사용해야 하는데 플래시의 불빛은 작품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다른 관람객들의 감상을 방해하므로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가나 작품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접담, 안 돼요

지인과 동행했을 때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자제해야 한다.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



전시된 그림을 사고 싶다면

공공 미술관은 그림을 판매하지 않는다. 일반 화랑에서 그림을 살 때는 갤러리스트*를 찾아 가격에 대해 물어보면 된다.

그림을 보다가 그림 위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림이 판매됐다는 뜻이다.

* 갤러리스트 - 그림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기획을 하는 사람

그림값은 어떻게 정해질까

미술품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제조비용이나 원가에 의해서만 판매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팸플릿, 초대장, 포스터, 액자 등의 전시 경비도 고려돼야 한다.

상설 화랑보다는 전시회장에서 사는 것이 더 비싸고 같은 작가라도 작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난다.

보통은 작가가 원하는 가격에 중개인이 가격을 조정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깎아주는 식의 관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매제도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한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유명세나 작품에 대한 해석, 작품의 장래 현금 가치 보장성 등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 적당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화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작가의 일방적인 가격 산정을 막고 객관적인 가격의 근거를 화랑이 마련하기 때문이다. 작품 구매자의 안목도 중요하다. 그림 보는 눈이 있어야 작품을 사도록 부추기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제값 주고 살 수 있다.

전시 관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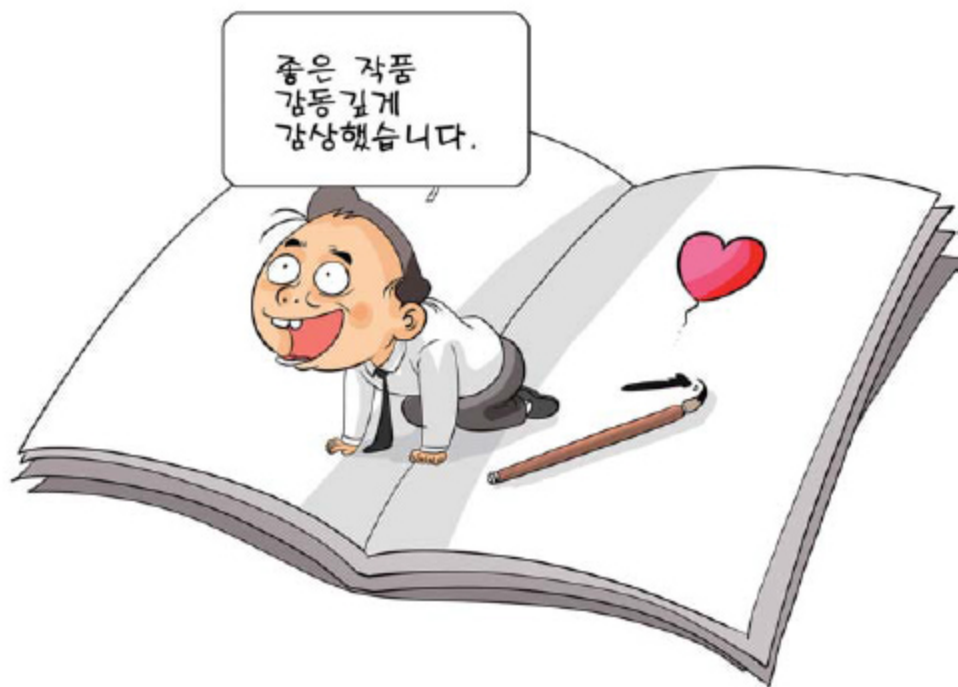
방명록에 글 남겨요

60대 그림 마니아 고호 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주로 미술관에서 보낸다. 매일 아침 미술 사이트를 검색하고 좋아하는 그림은 직접 사기도 했다. 미술관을 자주 다니며 방명록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다보니 미술관 마다 행사 정보를 보내줘 그에 맞춰 스케줄을 짜게 됐다. 특히 전시 오프닝 날은 빠짐없이 참석하는데 이때만큼은 작품의 주인공인 작가를 만날 수 있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작품 감상이 끝나고 나서 방명록에 본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메시지를 남긴다. 방명록에 연락처를 남기면 해당 전시관의 전시 정보나 각종 행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전시 오프닝 날짜에 관한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 오프닝에 참석해 해당 작가를 직접 만나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화환은 고맙지만 ...

조각가 A씨는 작가로서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이번이 열일곱 번째 여는 개인전 처음에 전시회를 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꽃다발도 건네 줘 내심 흐뭇했다. 실재없이 들어오는 화환과 꽃다발에 인기를 실감하면서 기뻐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개인전을 가지면서 이제는 꽃다발이 조금은 원망스럽다. 단체 이름으로 온 화환은 그 크기가 산만해 집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두고 오자니 그것을 치울 사람에게 미안했다. 꽃다발도 그 수가 너무 많아 집에 장식용으로 두기도 벅차다. 축하해주는 사람에게 고맙긴 한데 이 난감한 상황 어찌지?

공연장과 달리 전시장에 '화환, 꽃다발 안 받습니다' 라는 문구를 종종 보게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좋아하는 작가라든가 아는 사람의 전시가 있을 경우 축하의 의미에서 꽃을 가져간다. 그러나 많은 화환이 전시장 안에 비치될 경우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되고 생화는 며칠만 지나도 시들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는 경우에 따라 쌀화환을 보내기도 한다. 화환 놓는 자리에 쌀포대를 두는데, 화환처럼 버리지 않아 실용적이고 받은 쌀은 불우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대국의 힘은
예술입니다